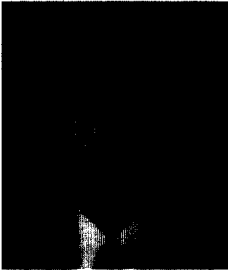


## 솔로몬의 지혜



趙泰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예** 날에 어느 왕에게 쌍둥이 왕자가 있었다. 두 왕자는 생긴 것은 비슷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형은 유약해서 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지냈다. 반면 동생은 커가면서 성질이 점점 사나워져 갔고, 왕의 말이라도 맘에 들지 않으면 대들곤 했다.

세월이 흘러 왕은 늙고 자신이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자 왕의 자리를 물려줄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은 두 왕자 중 시험에 통과하는 왕자를 후계자로 삼기로 하였다. 시험은 두 왕자에게 각각 한 달 동안 먹을 식량과 돈만을 가지고 궁궐 밖에서 1년 동안 살아남는 것이었다.

한번도 궁궐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두 왕자는 가지고 있는 식량과 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식량과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한참을 궁리하던 첫 번째 왕자는 그 마을에 사는 스크루지라는 구두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스크루지는 왕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자기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왕자는 그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스크루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왕자는 스크루지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로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

했다. 매일 매일 하루에 8시간씩 힘든 일을 해야 했으므로 죽을 지경이었으나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꼭 참고 견뎠다. 그리고 남몰래 고리대금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점점 불어갔다.

한편 두 번째 왕자는 식량과 돈이 바닥나자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기로 했다. 첫 번째 왕자가 스크루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왕자의 체면으로 하인으로 지내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새 왕과 약속했던 1년이 지나자 두 왕자는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왕에게 갔다. 첫 번째 왕자는 1년 전에 많이 초췌해 있었으나 고리대금업으로 번 돈이 두 번째 왕자가 막노동을 해서 번 돈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자, 그렇다면 왕은 어느 왕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을까? 하인으로 비굴하게 살았지만 돈을 많이 번 첫 번째 왕자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현명한 왕이라면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장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육체적 고통은 심했지만 남의 도움 없이도 꾀없이 살아남은 두 번째 왕자를 선택했을까. 여기에 대한 현명한 답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신흥 개도국은 제3세계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말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든 국제자본의 급격한 이동성에 의한 것이었든 경제위기의 영향은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하루빨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지상과제였다. 이때 각각의 위기국가들, 특히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위기상황에 대응하였는가를 비교해보면 '두 왕자'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모라토리엄 위협에 직면하자 곧바로 IMF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IMF의 요구

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긴축 재정·통화정책으로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F의 국제금융자금은 8%에 이르는 실업률과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수많은 기업의 도산, 실질소득의 감소, 1998년 마이너스 5.9%의 경제성장률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경우 IMF 국제금융을 받아들이라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마하티르 총리는 소로스의 퀴텀펀드를 비롯한 국제 헤지펀드들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지난해 9월 전격적인 자본통제를 실시했다. 링깃화의 달러화 환전 금지, 외국인의 국내증권 매각을 1년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자본통제정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과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MF를 비롯한 세계의 시선은 말레이시아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손을 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은 6%, 말레이시아는 4%에 이르는 성장률을 회복했으며 두 나라 모두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27일 10억달러의 해외국채 매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3대 신용평가회사 중의 하나인 S&P가 말레이시아의 장기 국가신용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실로 9개월여 만에 국제금융시장에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한국에게는 '스크루지'가 경제회복의 원동력을 제공했고, 말레이시아의 '자존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던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으며, 결과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두 왕자' 모두 후계자로 지목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각각의 두 나라가 겪었던 과정을 살펴본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이 만만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금사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한

이제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레테의 강'을 건넜다.  
'에우노에'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 있겠지만,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 즐기치게 외쳐왔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이 유일한 살길일 텐데,  
그 살길을 찾기 위한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융구조 개혁에 쏟아 부은 돈이 수조원에 달하며, 2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그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주식 투자한도를 철폐하고 외환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의 가변성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다른 길을 선택했던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비해서 고통이 덜 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외환위기 이전 2.6%의 실업률이 4.5%로 상승했으며, 자본통제정책과 함께 독자적인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을 통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다.

이제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레테의 강'을 건넜다. '에우노에'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 있겠지만,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 즐기치게 외쳐왔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이 유일한 살길일 텐데, 그 살길을 찾기 위한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쯤에서 다시 '두 왕자'의 이야

기로 돌아가 보자. 두 왕자 중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왕만 알겠지만, 현명한 왕이라면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장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1999~~